

일. 삶의 태도

- ❖ 전문직 어부였던 베드로, 안드레, 야고보, 요한이 한밤중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
- ❖ 그러나 폭풍이 그들을 덮쳤고, 거센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배에 물이 차오르며 그들의 목숨은 위태로워졌습니다. 그들은 ‘예수님은 어디 계시지? 주무시나?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?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신 것인가?’라며 현실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(막 4:35-38).
- ❖ In 우리 삶에도 폭풍이 옵니다.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지만, 그분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
- ❖ 폭풍을 꾸짖어 잠재우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. “잠잠하라, 고요하라”(막 4:39).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(벧전 5:7).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폭풍을 잠재우실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(막 4:40-41).

이. 질병

- ❖ 멈추지 않는 출혈로 12 년 동안 고통 속에서 병을 고쳐 줄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 빈털터리가 된 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(막 5:25-26). 현재도 무상 의료 혜택이 없는 나라들이 많으며,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입니다.
- ❖ 어쨌든 우리 모두는 질병에 갇혀 숨도 제대로 못 쉬는, 그 어떤 위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❖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희망을 보았고,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(막 5:27-29).
- ❖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유능한 의사들을 통해 치유하시거나 직접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.
- ❖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을 그분께 맡기라고 호소하십니다(마 11:28-30).

삼. 재난

- ❖ 전쟁, 폭력, 그리고 자연재해는 옴의 삶을 송두리째 뺏아 놓았습니다(욥 1:13-19). 우리 모두는 자연재해나 이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 인한 재앙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
- ❖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? 옴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?
 - 옴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
 -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
 - 가장 암울한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
 - 그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(욥 19:25-27)
- ❖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,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,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, 낙심 속에서 용기를, 그리고 재난 속에서 소망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(요엘 3:10; 롬 5:3-5)..
- ❖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,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만이 가장 안전하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

사. 좌절

- ❖ 믿음의 눈(관점):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시다. 현실: 예수님이 죽으셨다(눅 24:18-21).
- ❖ 제자들은 크게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(눅 24:22-24)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되찾도록 도와 주셨습니다. 마침내 “그들의 눈이 열렸고”(눅 24:31),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(눅 24:32-35; 고후 1:4).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?
 - 의심의 뿌리가 마음속에 자라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
 -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
 -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난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
 - 예수님은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

오. 예수님을 바라 봄

- ❖ 엘렌 화잇 여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,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
- ❖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예수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담으시며 “두려워하지 말아라”고 말씀하셨습니다.
- ❖ 그녀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고, 마치 하늘나라의 안전과 평화 속에 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.
- ❖ 이 환상을 통해 화잇여사는 희망과 믿음,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.